

'아고라 순천', 예술인 공연 수준 높이고 생계 지원

전문예술인 공연 횟수 늘리고 차별화
생활예술인 취미 만끽 무대 제공
다음달 5일까지 145팀 선발
순천문화재단, 올 운영 계획 발표



순천문화재단이 다음달 5일까지 '2020 아고라 순천'에서 공연할 145개팀을 공개 모집한다. 사진은 지난해 '아고라 순천' 공연 장면. <순천시 제공>

"오디션 심사위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새로운 것을 시도했을 때 기존에 하던 것이 아니다보니 오디션에서 점수를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아고라 오디션 관련>
"아고라 순천'만이 할 수 있는 순천을 대표하는 기획공연이 필요하다", "지역 예술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습공간 조성 및 공연 장소를 다변화했으면" <아고라 운영 관련>
순천의 대표 공연예술제인 '아고라 순천'에 대해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쏟아낸 개선 요구다. 순천시는 릴레이 간담회에서 나온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2020 아고라 순천' 운영계획을 내놨다.
25일 순천문화재단에 따르면 지난 23일 순천만 국가정원 동측 동천갯벌공연장에서 '2020년 항공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아고라 순천'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연중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연 운영 시스템으로, 시민들이 일상 생활속에서 문화 향유의 폭을 확대하고자 8번째 이어오고 있는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이다.
순천문화재단은 그동안 '아고라 순천' 운영을

평가하고 개선책을 담아 올해 계획을 발표했다.
'2020 아고라 순천'은 사업비 5억원을 들여 7월 1일부터 11월30일까지 전문예술단 공연과 특별기획공연, 생활문화 콘서트, 문화예술 체험 및 전시, 자선 바자회 등을 진행한다.
올해는 전문예술인과 생활문화예술인을 세분화하고 차별화해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문예술인은 생계 유지와 안정적인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공연을 늘린다. 지난해 평균 4.2회였던 공연 횟수를 올해는 7회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스토리 있는 공연 기획을 통해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인다.
반면 끼와 재능을 가진 생활문화예술인은 취미 생활을 만끽할 수 있도록 무대를 제공하고 생활문화축제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이를 위해 순천문화재단은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아고라 순천 공연팀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순천시 거주자로, 공연 역량을 갖춘 개인이나 단체가 지원 가능하다. 6월 중 서면심사와 오디션을 거쳐 전문예술 60팀, 생활예술 80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또 청년예술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예술팀에 청년공연팀 5팀을 별도로 선정

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전 공연팀은 7월부터 11월까지 순천만 국가정원, 문화의 거리 등 순천 곳곳에서 펼쳐지는 문화예술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2020 전국생활문화축제'와 연계한 활동도 한다.
허석 순천문화재단 이사장은 "아고라 순천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와 공유, 소통이 이루어지는 문화 예술 플랫폼을 구축하고 순천 문화예술의 대표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곡성군, '별씨 온탕 소독장' 364농가 이용 큰 호응



곡성군은 '별씨 온탕소독장'을 운영해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25일 밝혔다.
곡성군은 농업기술센터와 10개 면에 온탕소독장을 마련하고 지난 4월16일부터 5월20일까지 운영했다.
올해 별씨 온탕소독장에서 소독한 총 종자량은 3만4000kg으로 364농가가 이용했다.
별씨 온탕소독법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마른 종자를 65도 물에 7분 간(또는 60도 물에 10분) 담근 후 찬물에 20-30분 간 충분히 식히면 된다.
이는 친환경 병해제에서 종자로 전염되는 키다리병, 도열병, 깨씨무늬병과 비열선충 등을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이다.
곡성군은 기존 농업기술센터 내 소독장이 비좁다고 보고 향후 과학농실증시합포 내로 장소를 옮겨 농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개별 농가의 경우 고령 농업인과 소규모 농가인 경우도 있어 효과적인 온탕소독이 어렵다"며 "군에서 마련한 온탕소독장이 지역 농가들에게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순천대 돕자" 순천 출신 미술작가들 작품 75점 기증

순천 출신 국내 대표 미술작가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순천대학교를 돕기 위해 작품을 기증, 전시·판매하는 자리를 마련해 관심을 끌고 있다.
25일 순천대학교에 따르면 순천 출신 미술작가들은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순천대 70주년 기념관 1층 전시실에서 '2020 예술인과 한마당 기금 마련전'을 열고 있다.
'우석 김중익 선생께 화답하다'라는 주제의 이

번 전시회는 85년 전 자신의 재산을 기부해 순천대 설립의 기초를 닦은 우석(友石) 김중익 선생의 뜻을 이어받아 지역 출신 작가들이 대학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문화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 어간다는 의미를 담았다.
상석(桑石) 김덕기 화백과 조강훈 전 한국미술 협회 이사장 등 전국의 68명 작가들은 순천대 발전기금 마련을 위해 75점의 미술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대금을 대학발전재단에 기부하게 된다.
48명의 작가가 서양화와 한국화 작품을 냈고 7명의 작가는 문인화, 12명은 서예, 1명이 평면 부문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전시회 기간 중인 27일 오후 2시에는 고영진 순천대 총장이 작품기증 작가들을 초청해 기증확인서를 전달하고 감사함을 표하는 기념행사도 연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29일까지 '예술인과 한마당' 행사 판매 대금 대학발전재단에 기부

당초 2월 개최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됐다가 이날 개막했다.
고영진 순천대 총장은 "우석 선생님의 뜻을 되새기고 대학발전을 염원하는 행사에 대한민국 대표 작가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대학과 지역이 함께하는 전시회가 새로운 문화 가치를 나누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

28일 광양시 주민 고충 상담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동 신문고가 오는 28일 광양시를 찾는다.
광양시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는 현장에서 지역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주민들의 고충을 처리하는 전국 순회 현장 행정서비스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협업기관 전문가 15명의 상담반으로 운영된다.
상담은 모든 행정분야, 부패신고·상담, 행정심판, 민·형사 등 생활법률과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 민원, 지적(地籍) 관련 분쟁, 소비자 피해·분쟁, 노동문제 등 다양하게 이뤄진다.
이동신문고는 '상담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당일 현장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또 광양시 인근 지자체인 여수·순천, 구례, 경남 하동지역 주민들도 상담할 수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구례군, 서시천체육공원내 '구례형 어린이놀이터' 만든다

군·교육청·학부모 합동추진팀 운영
구례군은 교육지원청, 학부모, 지역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구례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례형 어린이놀이터는 서시천체육공원 내 약 2600㎡ 규모로 조성된다. 연내 완공이 목표다.
구례군은 어린이와 학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놀이공간이 절실하다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4월 구례군청·교육지원청·학부모 등이 포함된 놀이터 합동 추진팀을 구성했다. 합동 추진팀은 그동안 순천 기적의 놀이터 등 선진

지를 벤치마킹하고 SNS를 통해 의견을 공유했다.
올해 3월부터는 놀이터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지역 초·중·고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놀이시설 선호도 조사도 진행했다. 구례군은 최근 합동추진팀과 학생,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 실시설계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구례군은 다음달 최종보고회를 갖는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어린이, 주민, 전문가, 의회, 행정의 함께해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공간을 만들어 냈으므로 구례주민의 자긍심과 삶의 질도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구례군이 지난 21일 '구례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구례군 제공>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역사 010-6211-4585"

수익형 추천 물건	경매 물건
<p>건 물 ▶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p> <p>건 물 ▶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조정가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p> <p>의료시설 ▶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29억 5천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p>	<p>의료시설 ▶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평리 토지 : 17079㎡(5166.4평) 건물 : 9059.72㎡(2740.6평) 감정가 79억 1천5백만원 최저가(56%) 11억5천7백만원</p> <p>공 장 ▶ 전남 나주시 동수동 토지 : 4561.8㎡(1379.9평) 건물 : 3334㎡(1008.5평) 감정가 57억 4천6백만원 최저가 (36%) 20억 6천만원</p> <p>공 장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토지 : 16529㎡(5000평) 건물 : 1296㎡(392평) 감정가 28억8천7백만원 최저가 (70%) 20억 2천1백만원</p> <p>공 장 ▶ 전남 나주시 운곡동 토지 : 14000.1㎡(4235평) 건물 : 586㎡(177.3평) 감정가 22억 2백5십만원 최저가 (70%) 15억4천2백만원</p> <p>공 장 ▶ 전남 나주시 문평면 동원리 토지 : 2051㎡(620.4평) 건물 : 451.1평 감정가 10억2백5십만원 최저가 (70%) 7억2백만원</p>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